

世紀前半)과 同代の  
造成으로 推定하고  
자한다.

三  
百濟의 石燈材로  
서 扶博에 陳列되  
어 있는 佳塔里發見  
의 蓮花臺石④一個  
가 있을 뿐인데 이  
들 새로운 遺材를

增加한 것은 多幸이라 할 것이다. 이들이 八角形을 基型으로 삼고 있는 것은 新羅統一後 더욱 發達된 우리나라 八角石燈의 始源樣式을 보이는 貴重한 遺品이라고 할 수 있다. 同時에 이들 三個의 火舎石이 發見된 地點이 하나는 (發掘된 것) 石燈東方이며 다른 二個는 寺址中央(最大品)과 그 西方⑤(發掘한 部落民에 依한)이었다는 事實이 이곳 寺址에 대한 復元을 위하여 하나의 考察點을 提供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殘餘石材의 發見을 期待하면서 古代의 優秀한 石燈을 多數保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發生年代와 地域과 系譜를 살피는 資料를 삼고자 한다. (十一月二十二日記)

註

- ① 益山中學校發行 「益山古蹟」(一九五三年刊)에 「지금도 石燈籠佛石等の 出土가 繼續되고 있다」고 하였다.
- ② 發掘時는 嚴冬이었고 地面은 結氷되었는데 不注意로 二片으로 分斷되었다. 이 火舎의 高六七cm 一邊幅上 二七cm 下 二五cm 上徑 五九cm
- ③ 이 蓮花臺石은 高二五·五cm 徑七七cm 四瓣이 남았으며 圓孔徑 二九·五cm 깊이 一〇cm
- ④ 藤澤一夫·百濟石燈資料 (史蹟과 美術) 一五八) 博物館陳列品圖 卷第十四輯

第三卷 第十二號 通卷二十九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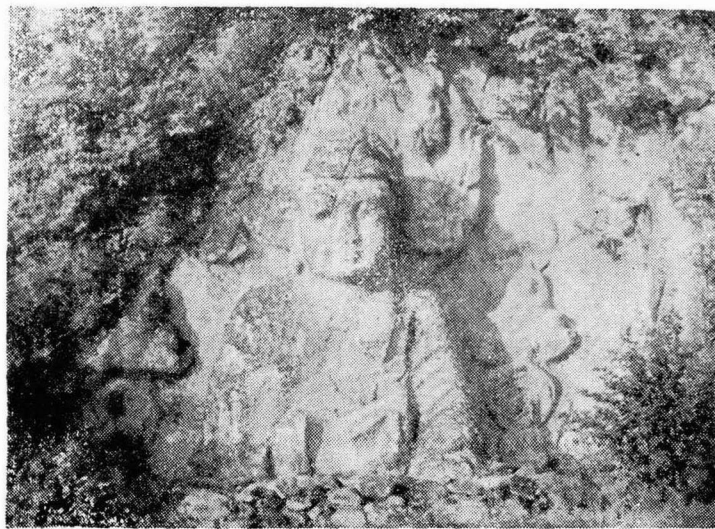
⑤ (附)火舎石一個(寺址西方出土推定)의 高는 六三cm 上徑 六五·五cm 一面幅上端이 二七cm 下端 二六cm

### 奉化 北枝里的 磨崖佛像

鄭 永 鎬

慶北奉化郡 物野面 北枝三里에 水月庵이 있고 庵子西便 山尾岩壁에는 陽刻된 巨大한 石佛一軀가 現存한다. 結跏趺坐像인 바 「페리이푸」가 커서 거의 圓刻에 가가운데 各部彫刻이 磨滅되고 光背의 一部가 破損되었으나 高古한 手法이 注目되었다. 岩壁으로부터 一七〇cm 以上으로 陽刻된 坐像이 中央에 位置하고 그 左右後壁에는 化佛이 上下로 二軀씩 浮彫되었으나 左便은(向左) 上部化佛이 半破되었다.

現高 三四五cm의 巨像이나 膝部以下가 埋沒되고 築壇되어 있는 關係로 그 下部까지의 實高는



4m 以上으로 推定된다. 머리는 약간 숙이고 素髮의 頭頂에는 큰 직한 肉髻가 있고 白毫는 없다. 兩耳는 肩에 까지 길게 늘어졌으며 兩眉眼과 鼻, 口部는 破損되었으나 口唇에는 微笑가 어리어 相好가 溫柔하며 慈悲가 넘친다. 通肩한 法衣는 胸前에서 U字形을 그렸고 兩腕을 걸쳐 앞으로 늘어졌는데 衣褶의 線이 굵다. 手印은 前面에 破損이 極甚하여 分明치 않으나 衣端으로 보아 右手는 胸前에 들어 施無畏印을 한 것으로 推定된다. 左側後頭部(向左)와 頭光左便一部가 破損되었으나 右側이 完全하여 곧 寶珠形頭光임을 알 수 있는데 그 中心에는 머리周圍로 蓮瓣을 彫刻하였다. 右外 頭光部는 內曲되고 太輪으로 內外二區한 痕跡이 보이며 周緣에는 火焰紋이 어렴풋하다. 外廓에는 化佛을 彫刻하였는데 頂上에 一軀를 配置하여 現在는 四軀뿐이나 元來는 都合七軀의 化佛이 있었음을 推定할 수 있다. 各化佛은 同一한 手法으로서 蓮花座에 結跏趺坐하고 合掌하여 寶珠形頭光을 가졌는데 特히 右側(向右)下部의 化佛頭光에는 二輪으로 三區한 것이 보이고 그外 化佛間地에 火焰紋이 注目된다.

이 佛像은 東向으로 自然岩層을 깊이 約二cm로 파서 다듬고 만든 龕室에 奉安되었으니 이러한 龕室意匠의 類例는 「慶州南山佛谷石佛坐像」이나 「瑞山泰安의 磨崖三尊佛」①에서도 볼 수 있다.

以上 本坐像은 造像形式이나 衣紋, 其他細部の 彫刻手法으로 보아 現地에서 가까운 榮州郡內에 所在하는 「可興里 磨崖三尊」 및 「石浦里 四面佛石」②과 恰似하다 할 것이다. 三尊의 形式은 아니라 할지라도 彫法이 古態하여 같은 系譜에 屬한다 할 것이다. 本坐像의 溫美한 相好라든가 衣紋 및 頭光의 形式과 化佛의 手法으로 보아 造成年代는 七世紀後半으로 推定된다.

現在 水月庵에는 老婆一名이 居住할 뿐이 遺像에 對한 保存施策이 全히 講究되어 있지 않은데 앞으로 埋沒된 膝下部의 發掘과 再調査를 期待하는 바이다.

이 곳에 가는 코스는 榮岩線으로 奉化驛에서 下車, 物野面行 街路로 約八km(每日一回의 物野行)이스가 運行 徒步로는 一時間半 實測値는

◎現坐高 三四五cm, 膝幅 三〇三cm, 肩幅 一九〇cm, 胸幅 一一〇cm, 頭部 高一四七cm, 相好幅 七三cm, 耳長 八五cm, ◎頭光高一二五五cm? ◎頭光 化佛高六三cm, 幅 二九〇cm, 頭光高一七cm, 膝幅 四六cm, ◎岩壁化佛高 一四五cm 坐像高八八cm 頭光高六三cm 幅一〇〇cm 膝幅 七五cm 幅七〇cm

註

- ① 黃壽永·「忠南泰安의 磨崖三尊佛像」(歷史學報一七·一八合輯一九六二年六月)參照
- ② 秦弘燮·「榮州石浦里 四面佛石」參照(本誌一의 一一九六〇年八月)

## 南原郡 大山面 石造如來立像

申 榮 勳

實相寺를 爲始하여 萬福寺址·龍潭寺址等 統一期羅代의 遺物이 南原郡一帶에 散在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나 아직 調査되지 못한 것이 相當數 遺存하고 있다. 大山面 石造如來坐像도 그 中의 하나이며 其外 周生面에도 立像이 二軀 調査되지 않은 채로 있다. 아직은 踏査하지 못한 곳에서 몇 軀의 佛像이 遺存하고 있다는 情報도 있어 앞으로 地域의 活潑한 調査가 期待된다.

同坐像은 總高三·四〇m·光背幅 三·m·像高一·九四m 膝幅 二·二四m의 크기이며 巨岩을 利用하여 半肉彫하였고 光背만은 岩面을 그대로 利用하였다. 像의 寶髮은 素髮

